

서울가정법원은 급증하고 있는 이혼과 소년 사건에 대한 심리 과정을 개혁하기 위해 지난 2004년 7월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논의를 계속해 왔다. 그 결과 및 가지 법률의 개정안과 특별법안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이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혼절차에 관한 특별법(안),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그것이다.

1956년 창설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이자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으로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및 불평등한 민법 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부재산제 관련 민법·가정폭력 특별법 개정안, 이혼절차에 관한 특별법 등을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내용들은 본 상담소가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이다. 지난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국회 통과후 개정해야 할 내용으로 부부재산제 개정과 이혼제도 개선 홍보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초점을 맞추어 왔다.

모든 제도·관습·법은 당대의 가치관과 철학·이념을 반영한다. 농업경제 기반의 한 대가



불자 세상보기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法’의 가정지킴이 노력

족 제도 아래서 가부장적 가치관과 제도, 관습은 필연적인 것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시대는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도시화의 진행과 더불어 이에 걸맞은 핵가족이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더불어 가족관계 또한 양성평등, 부부평등을 지향하며 성원 간 대화와 협력이 가부장적 지배와 통솔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가족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이 이 같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서울 가정법원 가사소년

제도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과 특별법안 등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기대는 그 시도 및 주요한 개정안들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특히 부부재산제 개정과 있어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는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이 처분제한을 어기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또는 장래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현저하게 위태로울 때 혼인 중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현실적으로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할 내용이다.

이혼절차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이혼속려기간 및 이혼전상담의 의무화이다.

작년의 경우 지속적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던 우리 사회의 이혼률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인 동시에 이러한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혼이 개인적 선택과 결단의 영역인 것임은 분명하지만, 한편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의 해체이며, 대체로 그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미치며 특히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 일방적인 피해자가 될 위험이 현저하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이혼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그 절차가 지나치게 간소하여 이혼과 이혼 후 자녀양육 등의 문제를 양산해 왔기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 실제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법률적인 상담의 중요성을 간과한 면이 있으며, 기간이나 상담 내용 등이 형식적인 것에 그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은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고 가시화되는 것을 환영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이 5월 31일 전국 교구본사 및 문화재 관리를 받고 있는 사찰 80여 곳에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화엄사 등에서 국가보조금 유용사건이 발생, 언론에까지 보도되자 사찰의 증대합을 깨닫고 내린 조치다.

조계종은 종단의 명예를 실수시킨 이 일을 계기로 청정한 승가위를 확보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단 차원에서 지침을 내린 것이라 한다.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비리나 사찰 운영에 따른 재정 투명화를 하지 못할 경우 중형중벌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고, 인사행정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조계종이 사찰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여 전달한 일은 환영한다. 그러나 과연 지침만 하달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

국고 보조금 청구 단일화 필요

조계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감사를 통해 국가지원 사업과 관련한 불사특별회계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회계전문가를 참여시켜 세밀한 감사와 함께 강력한 중무지도를 실시할 것이라 했다. 근본적으로 재정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각 사찰에서 자의적으로 행해지던 불사 등은 전 종단의 차원에서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불사의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의 결정, 그리고 소요예산의 책정 등에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재의 보수나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청구(窓口)가 단일화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가 단일화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다. 우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사찰간 형평성을 기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 일을 위해 우선 조계종총무원 직제에 편성되어 있는 성보보존위원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일부처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는 성보보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독립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 이기선(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이렇게 들었다 돌아온(?) 청계천

자연 이용하기를 끝낼까 꽃가루 언덕 하라. 꽃밭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 없게 하는 것처럼. (법규경)

6월 1일 드디어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흘렀다. 10월 1일 청계천 복원공사 완료를 앞두고 통수시험을 한 것이다.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흐른 것은 1958년 복개된 이후 37년만이다. 시민들은 환호를 지르며 '돌아온' 청계천을 반겼다.

하지만 청계천을 흐른 물은 지천(支川)을 따라 자연적으로 흘러온 것이 아니었다. 한강 자양취수장에서 퍼 올려져, 정수장에서 정수를 거쳐 청계천변에 묻어놓은 파이프를 통해 올라온 것이다.

공사 완료 후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물이 공급된다. 청계천의 수심을 30cm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12만톤의 물이 필요하며, 1년에 18억원 가량의 유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청계천 공사가 생태와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조경 하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계천의 상류 지천인 인왕산 백운동천과 북악산 중학천 등은 복개된 채 수도로 흘러들어가고, 정작 청계천에는 취수장의 물이 흘러가게 된다니 우스꽝스러운 노릇이다.

세상 만물은 관계성 속에 있다. 발원지에서 솟아나 바다로 흘러가는 개천도 예외가 아니다. 청계천은 청계천이라 명명된 구간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백운동천·중학천 등 상류지천들을 중랑천 등과 이어주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다.

자연의 관계성을 절단하고 인위적으로 조성된 청계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 박익순(취재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경전 한글화 이전 생활화 차례

우리불교는 한문경서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불교는 어렵다는 데 동의하지 않기는 힘들다.

불교의 숲한 경서를 모르면 불교를 모를까, 극단적으로 한문을 모르면 불교를 못할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면 명확해지거나 말이다. 한문을 모르고 문자를 몰라서 불교를 못한다면 한문 문화권이 아닌 이들은 불교를 할 수 없고 하지 못한다고 말해야 하니 이것보다 황당한 말은 없을 것이다.

한문의 우수성은 세계가 이미 인정했다. 다만 한문을 잘 모르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한문경전을 달달달 외게만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물론 이것들을 진언처럼 일심으로 외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너무 오랜 기간 한자경전으로 의례를 행하고 공부해온 우리 불교집단의 타성을 이제는 좀 벗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만아심경>을 외우기만 하면 되는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잘 알다시피 공의 체득은 문자에 있지 않고 아닌 데 있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 보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제자자들의 이야기는

흔하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보편적인 정상인이라면 부처님 말씀은 수긍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재미 있는 이야기와 임시방편적인 언설들이 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불교는 '스스로 부처가 되라'는 가르침이다. 내가 부처가 되지 않으면 불교는 한낱 유품에 불과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부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답론이 교설이다. 부처를 이루는 방법이 교화된 것이다. 부처를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교는 거주장스러운 것에 불과하다.

부처를 이루는 데 한문실력이 필요한가. 아니다. 편리할 뿐이다. 한문 경서를 읽을 수 있고 독해할 수 있으면.

보다 많은 이들이 불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대로 번역해 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자각에서 경전의 한글화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문제는 한글경전이 일반화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충실하게 번역된 한글화본 경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경전을 각종 의례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jabid(뚫타뉴스)

신도증으로 무료입장 안 되네

나는 조계종 신도다. 그런데 얼마 전 국립공원에 있는 사찰에 신도증을 보여주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무안을 당했다. 신

도증으로 무료입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 조계종 신도증을 가지면 전국 조계종 재적 사찰 입장료는 무료라고 알고 있던 나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3~4년 전 조계종 신도증을 발급 받았다. 신도증에는 당시 '교무금 연 1만원만 내면 전국 조계종 재적 사찰 입장료는 무료'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런데 영주 사찰사, 공주 동화사 등의 4~5군데 사찰이 신도증으로는 무료입장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황스러워서 조계종 포교원에 전화를 했다. 포교원 담당자는 "신도증을 갱신하지 않았다. 예외 사찰은 있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항의한다.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 중이다.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신도증을 상대로 속이는 것도 아니고 무료입장이 안 되는 곳은 안 된다고 알려줘야 할 것 아닌가. 교무금 1만원씩을 내고 신도증을 갱신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리 공지만 되었더라도 무료입장이 되지 않는 사찰에 가서 망신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두 무료입장이 안 된다면 조계종에서는 신도증을 발급할 때 무료입장이 안 되는 사찰을 표기해 주는 등 신중한 문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모두 된다는 식으로 쓰는 것은 신도들을 속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영중(충북 제천시 천남동)

'연대' 민영 심민섭

사실상 無策策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을 보기전에는 카르마에 대하여 논하지 마라!

한국의 에드가 케이지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02)2198-5789 / 051) 817-6156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씨가 자기최면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고요아침 값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동행 601175-52-016521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목(망월)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

■ 주요수락내용 ■
공감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땀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유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 번 결혼한 검사님
임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두 번 태어난 보일래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년여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 책속 부록 ■
▶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꿈 해몽 비법 ▶ 띠로 보는 공합
▶ 달로 보는 공합 ▶ 시(時)로 보는 공합
▶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 삼재법

서울·마포구 아현9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 www.indeenet.co.kr